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21년 표어 §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十 행동 지침十

-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 시험 받는 제자들 I

(요 6:60-65)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며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 1. 거절당한 예수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60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은 것을 듣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67절).

#### (1)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본문의 제자는 주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절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증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58절) 확실하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는 어떤 의미에서 결단의 시간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다가올 희생과 지불해야 될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의 높이와 신앙의 깊이에 스스로 도달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요구를 싫어하게 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 (2)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신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blasphemy)의 죄목을 붙여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줄곧 유대인들의 대적을 받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

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20세기 과학시대에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의심되지 않고 감격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3) 십자가 지신 하나님

주님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상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군중들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그들의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진리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는 줄 믿게 되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맡겨준 생명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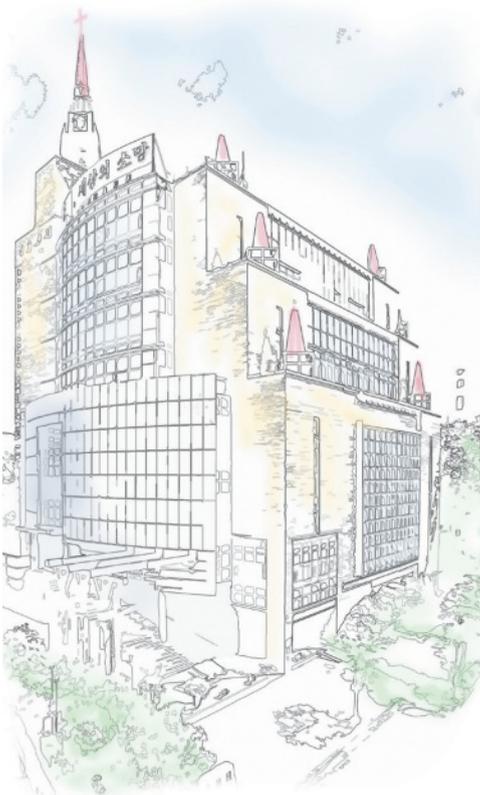
#### (4) 선재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숨은 생각마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므로 자기가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이들이 수군거렸고(41절), 이제는 예수를 따라오는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61절).

예수님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62절). ‘인자가 먼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이전 있던 곳은 하늘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선재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계셨던 분임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있던 곳은 선재하셨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에 예수님은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텐데 보이는 나도 못 믿는 마당에 보이지 않는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다음 주 계속)



2021 흥해작전

하나님의 진군명령 따라 행진 중

6.14(월) - 16(수) 조원영 목사

특별새벽기도회 : 6.17(목) - 6.25(금) 새벽 5시 / 손달익 목사

2021 흥해작전이 지난 주 찬양예배 시에 가진 개전예배를 시작으로 1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손달익 목사는 <하나님의 진군명령>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과 모세를 같은 지도력을 주실 것과 그의 길이 평탄하고 험통할 것을 약속하셨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즉시 순종하여 관리들에게 준비를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하나님께서 흥해 앞에 선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였다.

이제 진군명령이 떨어졌으니 서울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흥해작전 일정은 6월 14일(월)-16일(수)는 조원영 목사가 설교를 담당할 온라인 예배가 있으며 6월 17일(목)-25일(금)은 새벽 5시부터 특별새벽기도회로 대면예배와 예배실황 중계로 드리며 손달익 목사가 설교한다.

서울교회 흥해작전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흥해가 갈라지고 건너게 되는 기적의 기도작전으로써, 지난 1992년부터 시작된 30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교회의 자랑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역사다. 국가와 교회, 가정 앞에 놓인 흥해를 기도로 건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① 흥해작전 발대식을 진행한 안인호 장로(2021 흥해작전 부장)  
②-⑥ 발대식에 참여한 서울교회 성도들  
⑦ ⑧ 흥해작전 깃발을 받는 손달익 목사

사진 : 유은경 집사(편집부)

오늘 세례식 문답 실시

2021년도 두 번째 세례식인 6월 세례식이 6월 20일(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 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한 성도들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6월 13일(주일) 오후 1시까지 602호로 오기 바란다.

1시 문답 총정리가 있으며 바로 이어서 문답식이 있을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010-7743-3223)로 문의 주시기 바란다.

온라인 현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쟁 중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서울교회!

수기 및 간증 공모  
10월 31일(주)까지 수시 접수

1. 목적

교회 분쟁 시 성도들 개인적으로 아픈 기억이나 감동적인 사연을 글 또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자 함

2. 일정 : 2021. 6.1 - 2021.10.31

3. 진행 방법

- 수기형: 손글씨로 써서 사무국에 비치 된 수기 공모함에 제출
- 동영상: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USB 저장매체로 제출
- 온라인: 담당자(최종희 권사)에게 메일로 제출

4. 평가 방법

- 당회, 스테반회, 권사회의 각 2명과 분쟁 백서 담당자(최종희, 장상국) 심사위원
- 교회 분쟁에 대한 개별적 경험과 신앙적 감동이 사실적 표현으로 작성된 수기 또는 동영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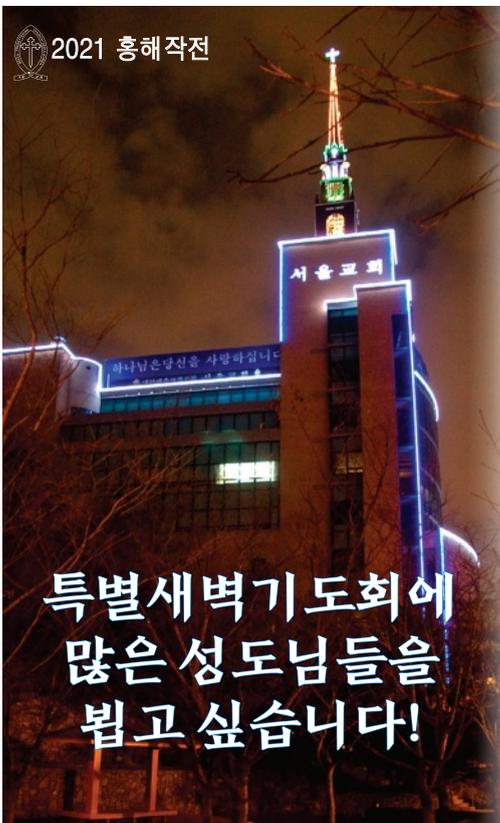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 황수지(육사생도) 한가형 김은호 유성혁 감동헌 소준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호 심준규 허성강 장하락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광태 집사  
(2021 홍해작전  
차량분과)

서울교회 고유의 행사인 홍해작전은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뜻있는 행사로서 서울교회 교인이라면 모두가 친숙해졌으며 한해의 중간지점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앞으로의 신앙관과 생활관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건데 당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혼란과 걱정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노예생활의 고된 시간이었지만 오랜세월 동안 익숙해진 애굽생활을 모두 버리고 기약도, 비전도 불투명한 미지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자 결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한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상상도 못했던 분쟁의 과정에서 거친 폭력과 비열한 모함으로 좌절과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에 기꺼히 맞서고자 결심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으며, 마침내 분쟁의 홍해가 갈라졌고 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 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몸된 서울교회의 회복과 재건이라는 보답으로 모두가 걸어 나아갈 때입니다. 새벽의 피곤함과 작은 번거로움을 떨쳐 버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 열어 주신 홍해를 서울교회 교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 개인 앞에 있는 홍해는 물론 사회 및 국가와 민족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는 놀라운 체험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분쟁 전 홍해작전 때처럼 주님께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교회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에 홍해작전 참석 차량으로 차고 넘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홍해작전이 되길 바랍니다.

## 2021 홍해작전 캘리그래피 공모전

2021 홍해작전 일환으로 순례자에서는 '2021 홍해작전 주제 및 성구 캘리그래피 공모전'을 실시한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란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펜, 크레파스, 매직, 나뭇가지, 붓, 잉크, 먹, 물감, 타블릿, 아이패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쓴 손글씨를 의미한다.

### \* 참가방법

1. 2021 홍해작전 주제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를 캘리그래피로 작성
2. 2021 홍해작전 성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시편 27:5)를 캘리그래피로 작성

### \* 제작방법

사이즈 : 최하 A3용지, 더 큰 사이즈도 가능하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캘리그래피로 작성한 원본을 순례자에 전달하면 된다.

\* 참가 자격 : 서울교회 성도면 누구나

\* 기한 : 6월 20일(주일)

\* 발표 및 전시 : 6월 27일(주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김혜언 집사  
(초등부 부장)

다시 예배를 다짐하는 서울교회, 다시금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는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새 일꾼을 선출하며, 사역을 새롭게 하기 위한 작업들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분과

의 논의를 진행하던 중 어느 분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회 교육이 방치되어 있다.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낼 수가 없다. 신앙 성장을 위해 믿고 맡길만한 교사가 없다"

어렸을 때의 나를 추억해 봅니다. 추억이라 할 만큼 제게는 교회 가는 것을 내내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예배 후 아이들과 성전 안팎을 뛰어다니며 어울리는 만남의 시간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 그 말씀, 그 친구들을 추억하며 연락도 하고 깊은 교제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함께...

지금, 서울교회에 몸담은 학생들에게도 다듬어지고 훈련된 말씀을 먹이고, 바른 예배의 모습을 추억으로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동지들을 구축해 나가는 신앙공동

체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되돌아가고 싶은 추억이며, 믿음의 계대를 잇는, 하나님께서 천국 일꾼으로 교육시키신 귀한 순간들로 지금을 기억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도에 헌신된 교사들은, 70명에 불과합니다. 분란 이전의 300명에 비하면 23%의 수준입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내가 모른척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학생들은 온라인 예배의 편함함에 적응되어져 가고, 학원으로, 친구들과의 어울림으로 빠지게 됩니다. 학원 시간에 막히는 대치동이 아니라 "서울교회로 몰리는 학생들로 인해 막히는 대치동"이라는 누명(?)을 쓰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주여! 우리 학생들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반석의 받침이 내가 되게 하소서"

초등부에서 우리 학생들의 믿음 성장을 위한 성도님들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4, 5, 6학년 담임교사 여러 분, 부담임교사, 그리고 키보드·기타 반주 등 다양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많이 많이 연락주세요^^

\* 이대원 초등부 전도사 : 010-4454-0391

\* 부장 : 김혜언 집사 010-3923-9913

#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교육일정

구분	일시	교육과목	강사
1차 교육	6월 27일(주)	오리엔테이션/ 본당/ 오후 3:30	손달익 목사 / 장석남 목사
	7월 4일(주)	부르심과 사명	서명철 목사
	7월 11일(주)	장로교 요리문답	조원영 목사
	7월 18일(주)	직분자와 전도	박미라 전도사
	7월 25일(주)	직분자와 리더십	손달익 목사
2차 교육	9월 5일(주)	직분자와 영성	전재홍 목사
	9월 12일(주)	구약개설	서명철 목사
	9월 19일(주)	신약개설	장석남 목사
	9월 26일(주)	예배모범과 주일성수	박미라 전도사
	10월 3일(주)	한국교회사	조원영 목사
	10월 10일(주)	총회헌법과 교회규정	당회(기획위원회)
	10월 17일(주)	교회행정및 회계처리 과제물 제출일 (10월 25일)	당회(기획위원회)
면접 및 시험	11월 5일, 6일, 7일 중 택일	당회고시 및 당회원 면접	당 회

\* 온라인 강의 영상 청취 후 보고서 제출  
\* 피택자 1일 영성수련회 : 방역 단계 완화되어 가능할 때에 시행 예정



리브가전도회(회장 김찬진 권사)는 '2021 흥해작전'을 맞아 병환이나 노환으로 오랫동안 교회 출석을 못하시는 교회의 어르신 열두 분께 전복죽과 홍삼캔디, 흥해작전 기도 카드와 안부 편지를 전달했다.

① 사랑의 안부 편지 ② 교회 어르신들에게 전달 될 작은 선물들 ③, ④ 리브가전도회에 감사를 표한 성도들

###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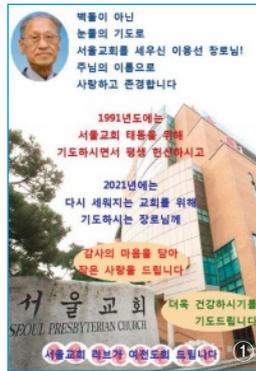
■ 이종운 원로목사는 매주 토요일 행하는 학술원 산하 몽골 <국제 울란바타르대학> 제1000회 이사회를 갖고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6.19(토) 한국기독교학술원 제11차 기독교학술상을 미국 아틀란타 소재 언더우드대 외 3개의 기독교 대학을 설립 운영하고 교육 선교의 모범을 보인 리차드 윤(윤석준)총장께 수여한다.

■ 수상 : 임마누엘찬양대 솔리스트 윤지후 성도 음악 교육 신문사 콩쿠르에서 일반부 남자 1위 없는 2위

■ 유년부 교육전도사(파트)로 사역하던 양하림 전도사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하였다.

■ 멀티미디어부 팀원으로 근무하던 이준태 집사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임하였다.

■ 떡 제공 : 최광성 장로·이정연 권사 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4일	월	시 32-35		고전 12-16	
6월15일	화	시 36-39		고후 1-13	
6월16일	수	시 40-44		갈 1-6	
6월17일	목	시 45-50		엡 1-6	
6월18일	금	시 51-56		빌 1-4, 골 1-4	
6월19일	토	시 57-62		살전 1-5, 살후 1-3	
6월20일	주일	시 63-68		딤후 1-6, 딤후 1-4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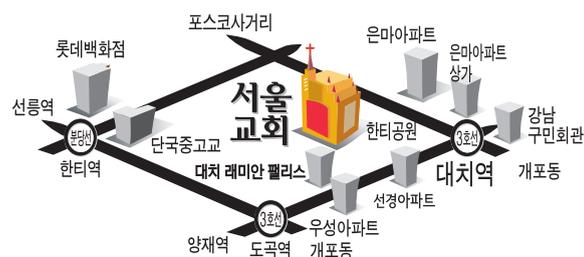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호국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게 하옵소서.
2. 2021 흥해작전을 통해 "주여,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소서!" 라는 주제와 같이 주님 몸 되신 교회를 높이 세워 주옵소서.
3.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깨어 있어 기도에 힘쓰며, 임직자 훈련을 통하여 잘 준비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minster 홀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